

백인 교외의 ‘좋은 삶’에서 배제된 모성과 시민권: 셀레스트 잉의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

정 희 연

단독 / 부산대학교

[국문초록]

셀레스트 잉의 소설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는 1990년대 말 오하이오주 셰이커 하이츠를 배경으로, 백인 중산층 교외 공동체에서 ‘좋은 삶’이라 불리는 이상이 가족, 재산, 규칙과 같은 사적 가치들과 결합하여 공동체의 공적 기준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로렌 벌랜트의 저작들인 『미국의 여왕 워싱턴 시에 가다』, 『잔인한 낙관』 및 ‘시민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감정과 애착이 시민의 자격을 구성하고 공동체 내부에서 정서적 기준이 되는 방식을 살핀다. 리처드슨 부인이 체현하는 규범적 모성은 ‘좋은 삶’에 대한 정동적 애착과 맞물리며, 공동체의 타자에 대한 선별적 수용과 배제를 낳는다. 특히 아시아계 아동의 양육권 소송은 ‘좋은 어머니’와 ‘미래의 시민’이라는 관념이 인종과 계급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현실을 드러낸다. 이 논문은 작품에 나타난 정동과 친밀성의 정치가 어떻게 공적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지를 비판적으로 추적하며, 문학 텍스트가 감정 정치와의 교차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주제어: 셀레스트 잉,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 좋은 삶, 로렌 벌랜트, 시민권

I. 들어가며

셀레스트 잉(Celeste Ng)의 두 번째 소설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Little Fires Everywhere*, 2017)는 오하이오 주 계획도시 셰이커 하이츠(Shaker Heights)에서 펼쳐지는 가족과 지역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다.¹⁾ 잉의 전작인 『내가 너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들』(*Everything I Never Told You*, 2014)과 세 번째 작품인 『우리의 잃어버린 심장』(*Our Missing Hearts*, 2022)과 마찬가지로 『작은 불씨는』 또한 미국 사회의 인종 문제를 함의하고 있지만, 이 작품은 교외 공동체의 ‘좋은 삶’에 대한 합의와 그에 포함될 수 있는 구성원의 자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문한다. 실제로 셰이커 하이츠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잉은 『작은 불씨는』의 시대적 배경을 1990년 말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그 시기의 인종 관계에 대한 상대적 낙관과 순진함”(Montgomery)을 실험해보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다. 본 논문은 잉의 ‘낙관과 순진함’이라는 표현에 착안하여, 셰이커 하이츠의 ‘좋은 삶’이라는 낙관과 순진함 이면에 동반되는 감정적 판단과 시민적 배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작은 불씨는』은 1997-98년 중상류층 백인 중심의 셰이커 하이츠를 배경으로, ‘좋은 삶’이란 자녀가 있는 이성애 가족이 자신들과 유사한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의 규칙을 거스르지 않으며 질서정연한 일상을 영위해나가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 교외 지역은 ‘가족’, ‘재산’과 같은 사적 가치들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공적 감정과 규칙으로 전환되고 작동하는 과정을 통해 보수화된 당대 미국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가정 내부에 침투한 양상을 드러낸다. 공동체의 공적 질서가 가족과 재산 등 사적 가치와 이에 수반되는 감정으로 구축되는 방식은 벌랜트(Lauren Berlant)가 분석한 1990년대 미국의 문화 정치와 긴밀히 연결된다. 벌랜트는 『미국의 여왕 워싱턴 시에 가다』(*The Queen of America Goes to Washington City*, 1997)에서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하의 보수 이데올로기가 재생산, 결혼, 개인의 도덕성, 가족 가치 등의 사적인 관심사를 어떻게 공적이고 정치적 문제의 핵심으로 바꿨는지를 분석하며 “시민권의 사유화”를 강조한다(3).²⁾ 벌랜트에 따르면, 시민권이란 “미국 대중을 구성하는 규범과 실천, 사

고방식을 두고 분투하는 다양한 집단적 논의 속에서 형성”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Citizenship” 45), “미국식 삶의 방식”(Queen 5)이라는 이름 아래 계급, 인종, 섹슈얼리티에 따른 배제를 정당화하는 보수적 질서를 재생산한다.

『작은 불씨는』의 셰이커 하이츠는 벌랜트가 분석한 20세기 말을 엿보게 하는 미국의 소우주다. 『미국의 여왕』에서 제시된 보수주의 감정 정치의 작동 방식은 이 공동체의 규범과 일상을 해석하는 데 유효한 틀을 제공한다. 나아가, 작품의 주인공 엘레나 리처드슨(Elena Richardson) 부인이 좋은 삶을 실현하려 애쓰고 그 이상을 고수하는 태도는, 벌랜트가 『잔인한 낙관』(*Cruel Optimism*, 2011)에서 “‘좋은 삶’이라고 하는, 도덕적이고-친밀하고-경제적인” “관습적 환상”(11)에 대한 애착이 (재)생산하는 ‘잔인한 낙관’의 구조와도 결부된다. 이처럼 작품을 벌랜트의 문제의식과 연결하는 시도는, “주류사회의 가족에 내재된 인종주의”(김민희 3), “인종적 얽힘”과 “메타문화적 탐구”(Brickhouse 380), “재생산 정의”(McKee and Gibney 129), “규범적 모성의 세대 간 트라우마”(O'Reilly 173) 등 인종과 모성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상대적으로 덜 조명된 감정 정치와 시민권 문제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작은 불씨는』은 1998년 봄, 변호사 남편을 두었고, 연년생의 네 아이—렉시(Lexie), 트립(Trip), 무디(Moody), 이지(Izzy)—를 키우는 리처드슨 부인의 집이 불타는 것으로 시작된다. 소설은 방화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 1997-98년을 돌이켜보면서 셰이커 하이츠 내 가족들, 십 대들, 인물들 간의 관계, 공동체를 이루는 규칙들을 자세히 그려간다. 리처드슨 부인은 셰이커 하이츠의 규칙을 완벽하게 따르는 ‘좋은 엄마’와 ‘좋은 삶’의 구현체에 가깝다. 그런 리처드슨 부인이 새로 이사를 온 한부모 가정 미아 워렌(Mia Warren)과 그녀의 딸 펄(Pearl)을 세입자로 들이면서 『작은 불씨는』의 주요 긴장 관계가 조성되며, 이는 작품 중후반부의 아시아계 아이의 양육권 소송과 결부되며 절정에 이른다. 본 논문은 『작은 불씨는』을 벌랜트의 논의에 기반하여, 첫째, 리처드슨 부인의 셰이커 하이츠 내에서의 좋은 삶과 둘째, 아시아계 아기의 양육권 소송의 함의를 살피고자 한다. 이는 “감정의 공적인 삶을 탐구”함으로써 연애, 가족, 가정 등의 친밀성에 관한 삶이 권력의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기반이자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포착할 수 있게 한다(Cvetkovich 6). 그럼으로써, 본 연구는 『작은 불씨는』이 보여주는 어느 가족의 삶이 어떻게 공동체를 (재)형성하는지, 그리하여 누구에게 이 마을의 삶을 받아들이고 배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셰이커 하이츠의 ‘좋은 삶’

『작은 불씨는』의 제사들인 셰이커 하이츠에 관한 광고 홍보문구와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의 1963년 기사 일부는 이 공동체가 유지하고자 하는 질서와 정서의 기반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다정한 사람들이고, 정말 즐겁게 살고 있어요!” ... 유토피아에 사는 이들은 진짜 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는 기사의 일부와, “무엇보다, 재산 가치 하락이나 원치 않는 변화로부터의 영구적인 보호도 포함됩니다”는 홍보문구는 『작은 불씨는』의 배경이 되는 1990년대 말의 셰이커 하이츠의 분위기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이다(xiv). 작품 속에서, “유토피아”의 “다정한 사람들”이 “원치 않는 변화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사는 셰이커 하이츠라는 제언을 유지하기 위해 이 공동체가 그간 가장 중시해온 것은 “규칙들”(59)이다. 가령, 집은 튼튼, 영국, 프랑스 양식 중 하나로만 지을 수 있다. 잔디를 제때 깎지 않은 가구는 경고장을 받는다. 쓰레기통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반드시 집의 뒷마당에 두어야 한다. 할로윈에 사탕을 받으러 다니는 놀이조차 십 대 이전의 아이들만 정해진 시간대인 저녁 여섯 시부터 여덟 시 사이에 가능하다. 결국, 셰이커 하이츠는 삶의 외형뿐 아니라 일상의 방식까지도 규칙화함으로써 ‘유토피아적’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하려 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셰이커 하이츠의 규칙들이 거주민들의 일상 ‘양식’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의식’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Brown v. Board of Education),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Montgomery Bus Boycott), 리틀록 9인(Little Rock

Nine) 등 미국 사회의 인종과 관련한 굵직한 사건들을 목도하면서도 “외부 세계의 문제들”로 여기던 셰이커 하이츠의 거주민들은 흑인 변호사의 집에 폭탄이 터진 내부의 현실을 목격한 후, 주민협회를 개설하고 흑인 가정과 백인 가정이 나란히 이웃이 되는 경우 대출을 완화해주는 등의 인종 “통합”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158-59). 인종 차별은 “셰이커 방식”(158)이 아니라고 믿는 이 공동체의 의식적 의무감은 『작은 불씨는』의 구체적 배경인 1997-98년 리처드슨 가정에서도 확인된다. 렉시는 “셰이커 하이츠에 살아서 다행이야”라며 “우리는 운이 좋다는 거야. 여기에서는 아무도 인종을 안 보잖아”라고 말한다(42). 이어 “피부색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43)라는 렉시의 발언은, 셰이커 하이츠가 인종 문제를 개인의 태도와 공동체의 규범 모두에서 ‘보지 않으려는’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피부색이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믿지 않는 셰이커 하이츠의 태도는 1990년대 말 미국에서 확산된 인종적 ‘색맹’(racial color-blindness) 담론과 맞닿아 있다. 색맹주의는 인종 간 법적·사회적 차별이 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피부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담론이다. 그러나 색맹주의의 맹점은, 인종을 보지 않는다는 태도가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이상에 대한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 1960년대 민권운동 이후 “누적된 피로감”의 결과로서 “백인의 헤게모니를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데 있다(Harrison 21). 당대 클린턴 행정부의 복지 및 우대조치에 대한 모호한 입장 역시 이러한 경향과 나란히 간다(Carr x). 색맹주의의 이러한 모순은 셰이커 하이츠 “공동체의 자기 인식과 현실 사이의 간극”(Brickhouse 384)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흑인 학생 데자 존슨(Deja Johnson)이 실수하자 교사는 “흑인 영어로 말해줘야 알아들겠어?”라며 차별적 언사를 서슴지 않고(77), 전문직 직종을 갖지 않은 데자의 부모는 학교 행사에서 백인 가족들과 어울리지 못한다(77-78). 반면, 렉시의 흑인 남자친구 브라이언은 각각 의사와 변호사인 부모 아래에서 자란 중산층 가정의 자녀로 리처드슨 가족에게 신뢰를 받는다. 브라이언의 가족은 미국 시트콤 <코스비 가족>(The Cosby Show, 1984-92)의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흑인’ ‘중산층’ 가정을 연상시킨다. 데자와 브라이언의 사례로 볼 때, 셰이커 하이츠는 인종을 ‘보지 않

는다’기보다는 백인 중산층의 삶을 기준 삼아 그에 부합하는 삶의 형태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색맹주의를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작은 불씨는』은 행복한 가족들이 색맹적 이상주의를 고백하는 교외 주거 지역의 모습을 통해 20세기 말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가 스스로를 어떻게 상상했는지 전형적으로 보여준다(McKee and Gibney 129). 그리고 그 중심에 조부모로부터 세이커 하이츠에서 살아온 3세대 리처드슨 부인이 있다. 그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의무감을 느끼며, 물려받은 윈슬로 가(街)의 집을 “그녀가 느끼기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생에서 공정한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활동의 형태”(12)로 여긴다. 시세보다 낮은 집세를 받으며 리처드슨 부인이 윈슬로가의 집을 통해 얻는 것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여기서 그녀가 ① 좋은 일을 한다고 ‘느끼는’ 것과, ② 결국 만족스러워하는 세입자가 성실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모범적 소수자’(model minority)의 전형인 홍콩계 양 씨(Mr. Yang)라는 두 가지 사실은 리처드슨 부인의 ‘좋은 일’이라는 선의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미국이 승인하는 ‘시민’의 형태와 맞닿아 있음을 나타낸다. 이 지점에서 『작은 불씨는』은 벌랜트가 『미국의 여왕』에서 궁구했던 감정이 시민권을 조직한다는 논의와 이어진다. 벌랜트는 “미국 어디에서나 친밀한 것들이 사람들의 얼굴 앞에서 번쩍인다”며 임신중지, 재생산, 결혼, 개인의 도덕성, 가족 가치 등이 “‘미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논쟁의 핵심이며, 시민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하며 『미국의 여왕』의 서두를 연다(1). 벌랜트가 눈여겨본 1990년대는 레이건 정부 이후 “정치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이 ‘공적 친밀성’의 세계 속으로 봉고되며”(Queen 1) ‘감정’이 곧 통치 방식이 되면서, 국가 정체성의 구성이 “시민권”이 “자발성과 사생활의 방식으로 축소”된 때이다(5). 따라서 리처드슨 부인의 ‘좋은 일’에 대한 느낌과 양 씨에 대한 관용은 ‘좋은’ 이주민에 대한 국가의 승인(정치적인 것)과 그녀 스스로의 ‘좋은’ ‘백인’ ‘시민’이라는 감정(사적인 것)이 결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급진적이었던 적은 없으나”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민주당에 투표”하는 삶을 살아

온 리처드슨 부인은 자신을 인종차별과 무관한 자유주의자라 여긴다(73). 그러나 그녀는 당시 “많은 교외 백인 여성”들처럼 사회적으로는 진보적이되 경제적으로는 보수주의적 질서에 충실한 인물이며, 이러한 자기 인식은 1990년대 후반에도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었다(Peterson). ‘자유주의자’로서의 리처드슨의 기만적 자기 인식을 추적해보는 것은, 벌랜트가 『미국의 여왕』에서 “자유주의자들과 좌파가 어느 정도까지 보수주의적 세계관을 흡수하면서 구조적 불평등에 맞서는 싸움을 포기하고, 보다 유동적이고 낙관적인 문화주의적 관점으로 전환해왔는지를 묻는”(Queen 5-6) 문제의식과 동떨어 있다. 벌랜트는 『미국의 여왕』에서 수도 ‘워싱턴’의 방문을 “세속적 순례”라고 명명하며, 이 순례가 방문한 사람과 국가 간의 “친밀한 거리”를 감정적으로 연결하고 형상화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6). 리처드슨 부인은 아직은 엘레나라 불리던 10살 때 어머니와 함께 워싱턴 행진에 참여한 적 있다. 리처드슨 부인은 “햇빛에 눈을 가늘게 뜨고, 허벅지가 맞닿을 정도로 뺨뺨한 인파 속에서, 사람들의 땀이 후끈하게 올라오던 가운데, 멀리 구름을 꿰뚫을 듯 솟은 워싱턴 기념비가 보이던 그 날”(159)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후술한다. 당시의 어머니는 워싱턴 행진을 배태한 인종 갈등에 관해 설명해주지 않는 대신 “이 순간을 기억하렴, 엘레나”(159)라고 말한다. 리처드슨 부인이 워싱턴 행진을 “햇빛” “뺨뺨한 인파” “땀”과 같은 감각으로 기억하게 된 순간들은(159) 그녀에게 국가와 “친밀한 거리”(Berlant, Queen 6)를 정동적으로 체화하게 한 세속적 순례다. 이 경험은 리처드슨 부인이 이후에도 국가에 대한 감정적 유대와 ‘좋은 시민’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만든 정동적 토대가 되며, 이는 시대 변화나 사회적 비판과 무관하게 지속된다.

리처드슨 부인은 “감정과 친밀성의 차원에서 경험되는 실체로서의 국가 개념, 그리고 친밀하고 성적인 수준에서 신체를 통해 살아지는 시민권의 개념”(Sturken 355)을 셰이커 하이츠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그 누구보다 ‘좋은 삶’으로서 구현하려고 애쓴다. 이를 위해 그녀가 무엇보다 애쓰는 것은 자신에게까지 ‘규칙’에 적용하며 그것을 좋은 삶이라고 믿고 유지하려는 것이다.

리처드슨 부인은 평생을 질서 정연하고 규칙적인 삶 속에서 살아왔다. 일주일에 한 번씩 체중을 잴고, 늘 의사가 말한 정상 범위—3파운드 안팎—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철저히 몸을 관리했다. . . . 그녀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냈다. 자신이 원하던 삶, 그리고 모두가 원한다고 믿어온, ‘좋은 삶’을 만 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이제, 미아가 있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다른 종류의 여자.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고, 그에 따라 살아가면서도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는 여자. (68-69)

미아의 존재는 리처드슨 부인의 좋은 삶이라는 질서를 위태롭게 만든다. 벌랜트는 『잔인한 낙관』에서 『미국의 여왕』의 문제의식을 “초국가적으로, 시간적으로 확장”하여, “누구나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민주주의적 가능성”이 사라져가는 오늘날, “일상이 삶의 구축과 기대감에 들이닥친 임박한 압도적 위기로 가득한 쓰레기 매립지처럼 되어 버릴 때 과연 좋은 삶에 대한 환상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본다”(『낙관』 11-13). 벌랜트에 따르면 ‘삶을 가지는 것’에 대한 믿음은 노동과 재생산이라는 규범적 삶의 방식과 조응하며, 이는 ‘인생이 결국 어떤 의미를 이루는가’라는 물음과 연결된다(Manning and Berlant 114). 삶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물음은 “세계가 우리가 애착을 가질 가치가 있는 장소처럼 보이도록 만드는”(114) 환상으로 이어진다. 리처드슨 부인의 셰이커 하이츠에서의 좋은 삶에 대한 환상은 “질서 정연하고 규칙적인 삶”에 대한 애착으로서 구축된다. 하지만 미아의 등장은 이 환상을 겨냥한다. “자기만의 규칙”을 가진 미아는 리처드슨 부인이 “모두가 원한다고 믿어온, ‘좋은 삶’을” 원하지 않음으로써, 리처드슨 부인이 지켜온 규칙들이 ‘좋은 삶’이라는 이상을 흔들어버린다.

이 때문에, 리처드슨 부인에게는 자신이 가진 환상의 연속성을 유지해줄 “정동적 거래”(벌랜트, 『낙관』 49)가 필요해진다. 상술된 인용문에서 그녀는 임대주가 예고 없이 방문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 조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아의 집을 불쑥 찾아간다. 그리고 미아를 “사과가 필요한 여자”라고 혼자 판단한 뒤, “사회공헌활동”(67)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가족사진 촬영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곧바로 “우

리 집에 와서 일하는 게 어떻겠냐”(69)고 제안한다. 집에 들어선 직후 미아가 자신과 “다른 종류의 여자”라는 점을 감지하면서도, 그녀를 자신의 가족 내부로 들이고자 하는 이 일련의 제안은, 리처드슨이 자신의 ‘좋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미아를 “가까이 있도록 붙잡아”(벌랜트, 『낙관』 49) 두려는 점에서 정동적 거래라 볼 수 있다. 정동적 거래는 벌랜트가 말하는 ‘잔인한 낙관’이 지탱되는 구조다. 리처드슨 부인은 자신이 애착해온 ‘좋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그 가능성을 위협하는 대상인 미아를 가까이 두는 방식을 무릅쓴다. “애착은 현재를 조직하는 기능을 하며, 이는 현재 자체뿐만 아니라 과거 및 미래와의 관계 속에서도 작동한다”(Anderson 400)는 설명을 빌리자면, 리처드슨 부인은 미아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과거부터 믿어온 삶의 이상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유지하고 미래에도 그러리라는 확신을 감정적으로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애착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손상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더라도, 그 애착이 사람에게 어떤 ‘작용’을 한다는 점이다”(401). 리처드슨 부인의 제안은 미아에게는 일방적이지만, 그녀 자신에게는 셰이커 하이츠에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정동적 협상이자 작용이다.

벌랜트는 잔인한 낙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잔인한 낙관은 우리에게 ‘좋은 삶’이라고 호명하는 대상에 대한 정동적 애착심 속에 기거하면서 ‘좋은 삶’을 살펴 보게 하는 자극제이다”(『낙관』 54-55). 리처드슨 부인에게 미아와 펄이 자신의 원슬로가에 위치한 집에 세입자로 들어온 사건은 그녀의 셰이커 하이츠에서의 좋은 삶에 대한 애착 가능성의 조건들을 발견하는 “자극제”다. 리처드슨 부인은 데니슨 대학(Denison University) 재학 시기를 제외하면 평생을 셰이커 하이츠에서 살아왔고, 이곳에서 네 자녀를 기르며 와인조차 계량해 마시는 생활을 유지해왔다. 반면, 미아는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으며, 펄이 태어난 이후에도 어배너(Urbana), 미들베리(Middlebury), 오캘러(Ocala), 앤아버(Ann Arbor)를 거쳐 셰이커 하이츠에 도착했다. 음식이든 재활용품이든 “용도를 바꾸는 데 능숙”(24)한 미아는 정착, 소유, 규범적 삶의 틀을 중시하는 리처드슨 부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 벌랜트가 말하는 ‘잔인한 낙관’의 구조는 리처드슨 부인이 자신의 삶의 환상을 지키기 위해 미아를 결

에 두려는 애착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미아는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을지라도 끝내 그녀의 규칙 안으로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리처드슨 부인의 ‘좋은 삶’에 대한 낙관을 재확인해주지 않는다. ‘낙관’은 가까워지는 느낌을 줄지언정 완수되지 못한다는 데서 ‘잔인’해진다. 이러한 잔인한 낙관은 곧 리처드슨 부인이 미아를 포함한 주변 인물들의 양육 방식에 개입하고, ‘누가 좋은 어머니인가’라는 물음으로 확장되며, 리처드슨 부인 대 미아의 구도로 양분되는 양육권 분쟁이라는 공적이면서 사적인 갈등의 장으로 이어진다.

3. 누가 미국 ‘시민’의 어머니인가

평자들은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에서 리처드슨 부인이 다른 등장인물들과 다르게 ‘엘레나’라는 이름 대신 ‘리처드슨 부인’으로 지칭된다는 것에 주목한다(Grady; Nguyen; O'Reilly 183). 리처드슨 부인이 엘레나로 불리지 않는다는 것은 셰이커 하이츠에서 “그녀가 헌신적인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O'Reilly 183). 리처드슨 부인은 아내이자 어머니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지역 소식지를 다루는 작은 신문사 『선 프레스』(*Sun Press*)에서 기자로 일하기 시작했고, 네 명의 아이를 낳은 뒤에도 그 일을 계속 이어간다. 그녀는 자기보다 어린 동료수습 기자가 유수 언론사인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으로 이직하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의 경력을 위해 셰이커 하이츠를 떠나진 않는다. 리처드슨 부인이 “아이들은 안전하고 행복하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수년 전에 자신이 설계했던 삶의 핵심”이라고 읊조릴 수 있는 것은(103) 그녀의 좋은 삶이라는 애착이 ‘규범적인 모성’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규범적인 모성이란 “자녀가 삶의 중심”으로서 “양육을 여성에게 본질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정의하며, 어머니를 그녀의 생물학적 자녀의 중심적 돌봄 제공자로 위치시키고, 자녀가 전일 어머니의 양육을 필요로 한다고 전제한다”(O'Reilly 171-72). 이러한 규범적인 모성상은 리처드슨 부인이 미아

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다른 종류의 여자”(69)라고 판단하게 하고, 결국 미아를 ‘좋은 어머니’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 “예술적 감수성과 유목적 삶을 즐기는” 미아가 “안정성”보다 “자신의 예술을 우선시”한다는 특징은 리처드슨 부인의 “백인 중상류층 어머니들의 단순화된 각본들” 속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McKee and Gibney 130).

그런데, 『작은 불씨는』은 리처드슨 부인을 통해 규범적인 모성의 정의가 상당히 자의적일 수 있음을 역설한다. 앞선 규범적인 모성의 나열된 속성 중 하나인 어머니가 ‘생물학적 자녀의 중심적 돌봄 제공자로 위치’한다는 사실의 적격 여부가 이 작품의 중반부에서부터 첨예한 문제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성의 ‘적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인종, 계급, 시민권 등과 교차할 때 그 모순이 더욱 뚜렷해진다. 『작은 불씨는』의 도입부를 살펴보면, 불이 난 리처드슨 가족의 집보다 먼저 언급되는 것은 “작은 미라벨 맥컬러프—또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 메이 링 초우”(1)에 관한 문제다. 작품의 전지적 작가는 백인 이름으로 유추되는 ‘미라벨’로 불려야 할 것인지, 아시아계 이름으로 유추되는 ‘메이 링’으로 불려야 할 것인지로 상반되는 생각을 보이는 셰이커 하이츠 대중들의 반응이 “희한하게도 이 이야기의 어떤 면이 지역사회에 아픈 곳을 건드린 것 같았다”(134)라고 말한다. 사회의 아픈 곳은 이 ‘유토피아’의 ‘다정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배면에 깔려있던 색맹주의를 암시하며, 이 인종 담론을 아이의 양육권 문제를 통해 한층 더 심화시킨다.

미라벨과 메이 링이라는 두 이름으로 불리는 아기의 문제는 곧 리처드슨 부인과 미아의 충돌 구도로 전환된다. 리처드슨 부인의 절친한 친구인 린다 맥컬러프(Linda McCullough)는 다섯 차례의 유산 끝에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지만, 그마저도 잘되지 않던 찰나 사회복지사를 통해 소방서 앞에 놓여 있던 아시아계 여자 아기를 만나게 된다. 한편 집세를 감당하기 위해 리처드슨네 집뿐 아니라 중식당에서도 일하던 미아는 광저우 출신의 베베 초우(Bebe Chow)와 친해진다. 미아는 과거 베베가 자신의 아기를 산후우울증과 분유도 살 여력이 없는 형편 때문에 소방서 앞에 두고 왔으며 다시 찾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미아는 리처드슨네 집에서 일하며 베베가 찾고 있

는 그 아기가 린다가 현재 키우고 있는 아기라는 것을 알게 되고 베베에게 알린다. 여기서 리처드슨 부인은 “자신이 남몰래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던 세입자”(137)이자 “정상적인 질서를 무시하는 데서 뼈뺀 즐거움을 느끼는 여자”(138)인 미아가 린다의 어머니로서의 오랜 바람과 ‘좋은 삶’을 깨뜨리려 한다는 데서 광분한다. 그리고 친구와 아기를 위해 “웁은 일”(138)을 한다는 명목으로 기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미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다가, 미아가 뉴욕의 부유한 백인 가정과의 대리모 계약 아래 펄을 낳았지만 아기를 잃었다고 거짓말한 뒤 현재까지 도망치듯 살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다.

작품의 중반부 이후부터 등장하는 양육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 미아의 대리모 출산, 렉시의 임신 중지까지 『작은 불씨』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모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Scholes) 모이지만, 이 과정에서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는 어머니의 위태로운 위치다. 우선 미아의 대리모 출산이 내포한 경제적 위태로움이다. 브릭하우스(Anna Brickhouse)는 미아가 “재생산 경제”에 “자발적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미아의 대리모 출산 결정은 “레이건 시기의 학자금 삭감으로 학비를 잃은”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학생에게” 미친 결과로서 미국 경제사의 상호연결된 계열의 한가운데 위치된다(385). 즉, 미아의 출산은 레이거노믹스에 따른 정부 지출 축소가 평범한 대학생을 재생산 노동으로 끌어들이는 구조적 결과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임신한 미혼 여성의 몸은 이미 ‘깨진 가족’을 상징”(Berlant, *Queen* 140)하기 때문에, 렉시와 브라이언의 아이는 임신 중지되어야만 한다. 특히 렉시와 브라이언의 아이는 보다 복합적인 인종 문제도 담지한다. 렉시가 임신을 알게 된 후 밝히지 않은 채 브라이언에게 “우리”의 아이에 대해서 상상해보자고 하자, 브라이언은 아이를 자신의 ‘흑인이라는 위치’와 바로 결합하며 즉답한다(175). “다들 이렇게 말할 거야. 아이고, 저기 좀 봐라, 또 어떤 흑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도 전에 여자애를 임신시켰네”라는 그의 대답에서 ‘또’와 ‘어떤’은(175), “너무 다산적이라고 간주”(McKee and Gibney 139)되는 흑인성과 결부된다. 마지막으로 “베베는 보다 광범위한 유색 여성들을 대리하는 인종화된 대체물”(134)이다. 시민권이 없는 아시아계 여성은 이성애규범적이며,

인종화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계급화된 모성 서사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적격한 존재”(134)로서, 시민권이 없고 아이의 아빠도 본국으로 떠나버린 유색인종 여성의 출산은 환영받지 못한다.

벌랜트는 『미국의 여왕』에서 “왜 공적 영역에서 순환하는 가장 희망적인 국가 이미지들이 성인 시민의 일상적인 삶, 공중, 정치 속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소수 시민 또는 가상의 시민—태아, 아이들, 실재하거나 상상된 이민자들—의 이미지인가?”(5)라고 묻고, 이에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미국인의 이미지”(6)에다 희망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즉, 가장 순수하고 태초적인 아이의 형상을 통해 미국 현재의 구조적 불평등이나 폭력을 못 본 채하면서 미국의 미래라는 열망을 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임신한 여성’은 임신한 ‘개인’이 아닌, 미국 사회가 “미래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생산”하게끔 기대하는 “정체성 기계”로 기능한다(Berlant, *Queen* 85). 미국의 미래를 품은 임신한 여성은 자연스레 “어머니가 되어 양육이라는 생애 궤도에 올라선 존재로 사전에 캐스팅”되고, 그렇게 임신한 여성과 태아는 모두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를 둘러싼 이념적 논쟁”들로 수렴된다(86-88). 벌랜트는 이러한 과정을 “임신한 여성은 여성이라는 범주가 국가 범주로 전환되며, 동시에 시민권 의미 변화의 주요 정당화된 공간이다”(98)라고 표현한다. 임신한 어머니는 사라지고 임신된 아이만 남는 기이한 분리에 대해 벌랜트는 태아적 모성이라 부른다. 『작은 불씨는』에서 베베의 임신과 출산이 이 맥락에 위치한다. 셰이커 하이츠에서 베베는 메이 링을 출산한 순간 아이와 분리된다. 베베가 낳은 아이는 ‘중국 여성’이 낳은 ‘중국계 아기’가 아니라 ‘셰이커 하이츠’(또는 미국)에서 태어난 셰이커 하이츠의 아기다. 임신이 곧 양육의 의무로 연결되는 전제가 작동하는 이 사회에서, 이유가 무엇이든 아이를 한 번이라도 포기한 여성은 어머니의 자격이 없다. 따라서 (베베의) 아기는 (리처드슨 부인과 셰이커 하이츠 식의 논리에서) 미라벨이라는 새 이름 아래 백인 중산층 가정의 보호 속에서 미국의 미래로 전유되는 게 합당하다.

시민권에 관한 벌랜트의 논의는 베베의 출산을 미국의 시민권 수행의 역사적 차원에서도 조명할 수 있게 한다. 벌랜트는 20세기 초 미국 법원이 정신질환자, 지적 장애

여성, 간질 환자로 간주된 여성들에 대한 불임 시술을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돌이켜보며, 이 판단이 “이 여성들이 어머니로서 무능하고 그 무능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할 것”이라는 전제에 근거한다고 설명한다(“Citizenship” 46). 가난한 여성들과 유색인종 여성들이 출산에서 배제되는 이 과정은 “부유한 계층과 성적으로 ‘정상’으로 여겨진 집단이 특권을 누리게”(46)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벌랜트의 설명은, 베베의 딸 메이 링이 ‘미라벨’이라는 이름으로 재명명되고 중산층 백인 가정에서 양육되어야 한다고 믿는 리처드슨 부인과 셰이커 하이츠의 시선을 이해하는 단초가 된다. 이는 곧 ‘좋은 삶’을 유지하려는 공동체가 누구의 아이를 미래의 시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시민권은 낯선 이들과의 공유된 역사적, 법적, 혹은 가족적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공통의 정체성을 느끼도록 학습하는 관계이다. 많은 제도적, 사회적 실천들이 개인의 정체성을 국가 정체성과 본능적으로 연결시키려는 목적을 지닌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종종 국가와 국민이 좋은 삶이라는 합의된 이상을 양육하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환상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 . . . 이러한 정치화된 친밀성에 대한 훈련은 정치적 경계를 내면적이고 감정적이며 마치 생리적 반응처럼 보이는 내부자의 외부자에 대한 반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기능해 왔다.

(Berlant, “Citizenship” 44)

벌랜트에 따르면, 시민권은 “공통의 정체성을 느끼도록 학습하는 관계”다. 이 학습은 제도적 실천뿐 아니라 감정적 판단과 정서적 소속감을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메이 링을 ‘미라벨’로 부르며 백인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고 믿는 셰이커 하이츠의 시선은, 이 아이를 ‘공통의 정체성’을 가진 매컬러프 부부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환상을 전제한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인종적으로 타자인 “외부자” 베베는 공통의 정체성 경계 밖에 있다는 감정적 이유로 인해 아이의 엄마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특히 소송명이 ‘초우 대 매컬러프’가 아니라 ‘초우 대 쿼야호가 카운

타”(222)인 점은, 이 양육권 분쟁이 베베와 매컬러프 부부 사이에서의 사적 다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결정권을 가진 정치적 사안임을 드러낸다. 즉, 누구에게 아기를 맡길 것인가의 문제는 곧 ‘누구에게 미래의 미국 시민을 기를 자격이 있는가’라는 시민권의 문제로 확장된다.

판결은 매컬러프 부부의 손을 들어준다. 셰이커 하이츠의 “정치화된 친밀성”은 ‘외부자’ 베베를 대하는 공동체의 대응에서도 이미 부각된 바 있다(Berlant, “Citizenship” 44). 베베가 경찰에게 아기를 되찾고 싶다고 말하자, 경찰은 이미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느냐고 응답한다. “아기를 포기한 어머니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없다”(151)는 명제는 가난과 산후우울증이라는 현실을 무시한 채 베베를 ‘외부자’로 여기는 공동체의 차별적 시선을 드러낸다. 가령, 베베가 백인 중산층 여성이었더라면 셰이커 하이츠의 경찰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실제로 『작은 불씨는』은 이러한 비슷한 시선을 이미 확인시켜준 바 있다. 초우 대 쿠야호가 카운티 소송이 이 지역 공동체를 휩쓸 때 마을의 한 백인은 “베베”라는 단 두 음절의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129). 이 망각은 단순히 무시나 무관심 혹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이름마저 기억되지 않는 ‘외부자’로서의 베베의 위치를 나타낸다. 결국, 아이를 향한 법적, 공동체적 관심은 아이의 생물학적 어머니인 베베가 아니라 “내부자”(Berlant, “Citizenship” 44)인 매컬러프 부부에게 쏠려 있으며, 이는 ‘누가 미국의 아이를 가질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음이 확인된다. 미라벨 혹은 메이 링, 메이 링 혹은 미라벨의 시민권은 인종, 계급, 문화적 동질성으로 둘러싸인 정치적 친밀성의 구조 안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셰이커 하이츠는 아기를 매컬러프 부부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베베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아기를 훔쳐 미국을 떠난다. 베베는 역설적으로 시민권의 자격 바깥으로 벗어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권리를 되찾는 셈이다.

4. 나가며

『작은 불씨는』의 결말은 리처드슨 부인의 집의 방화가 이지의 소행이었음을 밝혀지고, 이지가 가출하며 미아와 펄 또한 셰이커 하이츠에 이사 온 지 일여 년 만에 떠나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간, 이지는 학교 내 미세한 인종 차별에 분개하고, 아기는 매컬러프 부부 대신 베베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 즉 리처드슨 부인과 셰이커 하이츠 내의 ‘규칙’과 ‘좋은 삶’과 계속해서 불화해온 아이였다. 결국, 이지 그리고 미아와 펄이 이 지역 공동체를 떠나는 선택은 리처드슨 부인이 옳다고 믿는 셰이커 하이츠 내에서의 ‘좋은 삶’과 그 삶을 유지하는 사적이면서 공적인 질서가 제거하거나 지워야만 하는 좋지 않은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지의 ‘떠남’은 리처드슨 부인에게 있어 ‘좋은 삶’을 위한 ‘좋은 엄마’로서는 실패를 의미한다. 작품의 마지막 문단은 리처드슨 부인이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필요하다면 영원히” 딸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 다짐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336). 여기서 리처드슨 부인의 이러한 선택은 다시 한번 ‘잔인한 낙관’의 회로에 들어서는 것과 다름없다. 그녀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신이 추구해온 ‘좋은 삶’의 형태가 무너지는 것을 잿더미에 서나마 견디고자 하는 시도에 가깝다.

『작은 불씨는』은 1990년대 말 미국이라는 특정한 시공간을 배경으로, 어머니, 아이, 가정, 좋은 삶과 같은 사적인 감정 구조가 공동체의 공적 질서와 어떻게 긴밀하게 엮여 있는지를 보여준 작품이다. 본 연구는 벌랜트의 이론을 중심으로 보수적 문화 이데올로기가 ‘규칙’이 되는 백인 중산층 이성애 가족 중심의 교의 공동체를 추적했으며, ‘시민권’ 논의를 통해 ‘좋은 어머니’, ‘좋은 삶’, ‘미래의 시민’에 결부된 감정 정치가 어떻게 타자를 규준하고 배제하는 기준으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잔인한 낙관’이라는 개념을 통해, 리처드슨 부인의 모성과 좋은 삶에 대한 환상이 좋은 삶에 대한 정동적 애착이 맞물려 작동하는 구조적 결과임을 드러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감정과 친밀성이라는 사적인 정서 구조가 인종, 계급, 시민권과 같은 공적 질서를 어떻게 조직하고 재생산하는지를 논함으로써, 문학 연구와 감정의 문화 정치가

교차하는 지점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Notes

- 1) 이하 『작은 불씨는』으로 약기하고, 작품에 대한 인용은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한다. 본 작품에 대한 번역은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이미영 옮김, 나무의철학, 2018)을 참고했으나 일부 수정하였다.
- 2) 이하 『미국의 여왕』으로 약기한다.

인 용 문 헌

- 김민희. 「셀레스트 잉의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에 나타난 백인 중심의 가족 가치의 해체와 재구성」. 『새한영어영문학』, 64권 3호, 2022, 1-22쪽.
- 벌랜트, 로런. 『잔인한 낙관』. 박미선, 윤조원 옮김, 후마니타스, 2024.
- 잉, 셀레스트.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 이미영 옮김, 나무의철학, 2018.
- Anderson, Ben. “Forms and Scenes of Attachment: A Cultural Geography of Promises.” *Dialogues in Human Geographies*, vol. 13, no. 3, 2023, pp. 392-409.
- Berlant, Lauren. “Citizenship.” Burgett and Hendler, pp. 44-48.
- _____. *Cruel Optimism*. Duke UP, 2011.
- _____. *The Queen of America Goes to Washington City: Essays on Sex and Citizenship*. Duke UP, 1997.
- Brickhouse, Anna. “Celeste Ng’s *Little Fires Everywhere* and the Burning House of American Literature.” *Race in American Literature and Culture*, edited by John Ernest, Cambridge UP, 2022, pp. 379-94.
- Burgett, Bruce, and Glenn Hendler. *Keywords for American Cultural Studies*. 3rd ed., New York UP, 2020.
- Carr, Leslie G. “Color-Blind.” *Racism*, Sage, 1997.
- Cvetkovich, Ann. “Affect.” Burgett and Hendler, pp. 5-8.
- Harrison, Colin. *American Culture in the 1990s*. Edinburgh UP, 2010.
- Henderson, Eleanor. “In a Quiet Ohio Town, Who Started the Fire, and Why?” *The New York Times*, 25 Sep. 2017, <https://www.nytimes.com/2017/09/25/books/review/little-fires-everywhere-celeste-ng.html?smid=url-share>.
- Grady, Constance. “In Celeste Ng’s new novel *Little Fires Everywhere*, motherhood

is a battlefield.” *Vox*, 13 Sep. 2017,
<https://www.vox.com/culture/2017/9/12/16288136/celeste-ng-little-fires-everywhere-review>.

Manning, Nicholas, and Lauren Berlant. “‘Intensity Is a Signal, Not a Truth’: An Interview with Lauren Berlant.” *Revue Française d’Études Américaines*, no. 154, 2018, pp. 113-20.

McKee, Kimberly D. and Shannon Gibney. “‘It Came, Over and Over, Down to This: What Made Someone a Mother?’: A Reproductive Justice Analysis of *Little Fires Everywhere*.” *Feminist Formations*, vol. 35 no. 2, 2023, pp. 129-53.

Montgomery, Lynda. “White Lady Problems: On Celeste Ng’s ‘*Little Fires Everywhere*,’ and the Portrayal of ‘Rich, Lily White’ Shaker Heights, OH.” *Belt Magazine*, 16 Nov. 2017,
https://beltmag.com/white-lady-problems/?utm_source=perplexity.

Ng, Celeste. *Little Fires Everywhere*. Penguin, 2017.

Nguyen, Sophia. “In ‘*Little Fires Everywhere*,’ A Custody Battle Ignites the Comfortable Suburbs.” *Harvard Magazine*, 8 Sep. 2017,
https://www.harvardmagazine.com/2017/09/celeste-ng-little-fires-everywhere?utm_source=perplexity.

O’Reilly, Andrea. “‘What Finally Dragged Her under the Water and Who Carried the Spark’: The Intergenerational Trauma of Normative Motherhood in Celeste Ng’s *Everything I Never Told You* and *Little Fires Everywhere*.” *Normative Motherhood: Regulations, Representations, and Reclamations*, edited by Andrea O’Reilly, Demeter, 2023, pp. 171-90.

Peterson, Anne Helen. “Celeste Ng Says ‘*Little Fires Everywhere*’ Is A Challenge To “Well-Intentioned” White Ladies.” *BuzzFeed News*, 19 Mar. 2020,

<https://www.buzzfeednews.com/article/annehelenpetersen/little-fires-everywhere-hulu-celeste-ng-reese-witherspoon>.

Scholes, Lucy. “*Little Fires Everywhere* by Celeste Ng, book review: Deeply satisfying to read.” *Independent*, 15 Nov. 2017,

https://www.independent.co.uk/arts-entertainment/books/reviews/little-fires-everywhere-by-celeste-ng-book-review-a8056371.html?utm_source=perplexity.

Sturken, Marita. “Feeling the Nation, Mining the Archive: Reflections on Lauren Berlant’s *Queen of America*.” *Communication and Critical/Cultural Studies*, vol. 9, no. 4, 2012, pp. 353-64.

Abstract

Motherhood and Citizenship Excluded from the 'Good Life' in White Suburbia: Celeste Ng's *Little Fires Everywhere*

Jeong, Heeyeon

Pusan National University

Celeste Ng's *Little Fires Everywhere* takes place in Shaker Heights, Ohio, in the late 1990s, and closely examines issues of family, community, race, and class. This paper focuses on Elena Richardson, a white middle-class woman who believes strongly in rules, order, and what she perceives as a 'good life.' It explores how her beliefs shape the way she judges others and tries to control the world around her. Drawing on Lauren Berlant's theories of citizenship and cruel optimism, the paper looks at how Richardson's sense of right and wrong allows some people to belong while pushing others out. The paper also analyzes the custody battle over an Asian American baby, showing how ideals of good motherhood and citizenship often depend on race and class. Through these stories, *Little Fires Everywhere* reveals who gets included in the promise of a good life—and who is left out. The novel illustrates how private lives and public values were deeply connected in shaping the imagined future of American society. This paper reads *Little Fires Everywhere* as a critical reflection on how ideals of the good life were maintained, negotiated, and enforced in late twentieth-century suburban America..

Key Words: Celeste Ng, *Little Fires Everywhere*, Lauren Berlant, citizenship, good life

논문접수일: 2025.6.2

심사완료일: 2025.6.20

게재확정일: 2025.6.20

이름: 정희연

소속: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사

이메일: jeonghy@pusan.ac.kr